

'손흥민 합류' 벤투號, 오늘 이라크와 WC 최종예선 첫판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서 1차전 홈 경기
2006년 韓감독 아드보카트 이라크 사령탑
지난달 31일 합류한 유럽파들 컨디션이 변수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크와 2020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사진은 훈련 중인 벤투호.

손흥민(토트넘·사진)이 합류한 벤투호가 '중동의 폭병' 이라크를 상대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크와 2020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레바논과 붙는 2차전은 7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올해 6월 끝난 월드컵 2차예선을 H조 1위(5승1무)로 통과해 최종예선에 오른 한국(FIFA랭킹 36위)은 이라크(26위), 아랍에미리트(UAE·68위), 이라크(70위), 시리아(80위), 레바논(98위)과 함께 A조에 속했다. 최종예선은 A, B조 상위 12위 팀이 본선이 직행하고, 각 조 3위 팀끼리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행 주인공을 가린다.

상대 팀이 전일 중동 국가로 구성된 쉽지 않은 여정이다. 특히 중동 특유의 '침대 축구'는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최대 변수로

지적된다.

벤투 감독은 홈에서 열리는 최종예선 1, 2차전 승리를 위해 최정에 멤버를 소집했다. 유럽에서 뛰는 손흥민을 포함해 황의조(보르도), 황희찬(울버햄튼), 이재성(마인츠), 김민재(페네르바체)를 불러들였다.

또 중동과 남태평양(알두하일)을 비롯해 황인범(루빈카잔), 손준호(산둥타이산), 김영권(감바오사카), 김문환(LAFC) 등 해외파 핵심 선수들도 합류했다.

여기에 K리그에서 활약하는 권창훈(수원), 이용(전북), 홍철(울산), 박지수(김천), 이기재(수원) 등과 함께 '젊은 피' 선두 주자인 이동경(울산), 송민규(전북), 조규성(김천)이 호출됐다.

다만 벤투호 불박이 미드필더인 정우영(알자드)이 지난달 23일 귀국 항공편 승객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격리돼 소집이 불발되면서 중원 공백이 우려된다. 대체 선수로는 주세종(감바오사카)이 뽑혔다.

불안 요소는 또 있다. 벤투호 주전이라 할 수 있는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김민재 4명이 소속팀 일정으로 지난달 31일 오

후 늦게 대표팀에 합류했다. 겨우 1일 하루 발을 맞춘 뒤 이라크전에 나선다.

선수들 간 호흡을 떠나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체력 소모와 시차 적응 등이 우려된다. 손흥민은 "최종예선은 되게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선수들도 각오가 다부지다. 얼마나 중요하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이라크전은 최종예선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기다.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해야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2차예선과 달리 최종예선은 팀들 간 전력 차이가 크지 않아 매 경기가 결승전이다. 한국은 이라크와 역대 상대 전적에서 7

승1무2패로 우위에 있다. 1984년 4월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최종예선 0-1 패배 이후 최근 10경기(4승6무) 연속 무패다.

하지만 무승부가 6차례나 될 정도로 이라크와는 항상 접전을 펼쳤다. 2007년 아시안컵 4강전도 0-0 무승부로 기록됐지만, 승부차기 끝에 한국이 패한 경기였다.

이라크는 2차예선도 C조에서 5승2무1패를 기록하며 이라크(6승2패)에 이어 조 2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이라크를 이끄는 사령탑은 2006년 독일월드컵 때 한국을 지휘했던 딘 아드보카트 감독(네덜란드)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 축구를 경

험한 아드보카트 감독의 존재는 한국에 부담이다.

벤투 감독은 "이라크는 다양한 전술 시스템을 쓸 수 있는 팀이라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히 이라크 감독은 경험이 많고 뛰어나다"고 경계했다.

'중동파'로 통하는 남태평양은 "이라크에는 카타르에서 뛰었던 선수 몇 명 있다. 그 선수들 플레이 방식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특히 이라크전은 준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

톰 크루즈 '미션임파서블7', 1100억 보험금 소송

코로나에 6번 촬영 중단
"보상 거부는 계약 위반"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 7'을 제작 중인 미국 파라마운트가 보험사를 상대로 1100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등은 파라마운트가 이러한 내용으로 보험사 페더럴 인슈어런스를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션 임파서블 7' 촬영을 앞두고 최대 1억

달러(1157억원) 보험을 들었으나 보험사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른 촬영 중단과 제작 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험사가 전액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션임파서블7'은 지난해 2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다. 작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차례 촬영이 중단됐는데 이 중 6차례가 코로나 사태가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파라마운트는 측은 이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지난해 2월 제작진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촬영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만 약 500만달러(57억원)를 지급했다.



파라마운트는 보험사가 전액 손실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스키아데일리/뉴스

공효진·이천희·전혜진, 탄소제로 도전

KBS 환경 예능 출연... 인스타그램 통해 스틸 공개

'20년 절친' 배우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이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가운데 첫 번째 미션으로 프로그램 제목 공모에 나섰다.

1일 KBS에 따르면 공효진과 이천희·전혜진 부부는 KBS 환경 예능에 캐스팅됐다. 이들은 '희효진'이라는 계정의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여러 장의 스틸을 게재하며 근황을 전했다.

특히 "저희가 KBS와 함께 환경 예능에 도전하는데요~ 저희가 눈에 빠져서

요. 제목의 높. 저희 프로그램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두 달째 고민 중"이라는 글을 올려 궁금증을 더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이 손을 잡고 낯선 곳에서 펼쳐는 탄소제로 생활 도전기를 담는다. 세 사람이 필(必)환경 시대에 맞춰 최소한의 불편함을 실천하며 탄소 다이어터에 도전하는 내용이다.

공효진은 친환경 에세이 '공책'을 발간할 만큼 환경 이슈에 대해 꾸준한 관심



배우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이 KBS 환경 예능에 캐스팅됐다.

을 보이며 남다른 고민과 실천을 계속해왔다. 이천희와 전혜진 또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이용하는 등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대표 연예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처음 방송될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뉴스

내일의 부 전 2권 1권 알파편, 2권 오메가편

폭락장에서 증명된 조던 김장섭의 통찰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다면 이 책에 답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99.9% 부자 되는 법,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천기누설급' 부자 매뉴얼!

이 책은 이론만 그럴싸한 책이 아니라, 저자가 직접 지난 수십년 간을 하무도 빼놓지 않고 분석하고, 그 자신이 직접 이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JD 부자연구소'에서 회원들이 투자에 활용하고 있고,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부자 되기 비법이다. 부동산부터 주식, 채권, 환율까지 국내투자를 넘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내 손 안에 넣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오랫동안 최대의 수익을 제갈량처럼 딱 주무르듯 할 수 있는 신묘한 계획을 제시한다! 당신은 매뉴얼에 따라 기계처럼 사고팔기만 하면 된다.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책이라 할 수 있다.

"뻔할 것이라 함부로 예측하지 마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 책은 부자 티켓 그 자체다!"

출간 즉시
전서점
베스트셀러

조던 김장섭 지음 | 각권 16,000원
트러스트북스



조던 김장섭의 또다른 필독서! (각권 16,000원)

-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 <4차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미래>
- <한국의 1000원짜리 땅 부자들>
-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도서서 전국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관련 문의는 02)322-3409

트러스트북스